



미국 하인즈사, 그룹 통합 대형회사 설립
 북미시장 통합, 시장지분 획기적 확대 기대

미국의 대표적 식품산업 그룹 중 하나인 하인즈사가 케첩에서 애완동물 사료 생산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그룹 내의 모든 산업을 통합, 자산규모 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단일 대형회사(메가컴퍼니)를 피츠버그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켄터키주 뉴포트에 소재한 스타키스트식품, 스타키스트생선과 하인즈 애완동물식품회사는 피츠버그로 옮겨지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분사화로 가는 최근 기업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인즈사는 또한 하인즈유에스에이, 스타키스트생선, 하인즈애완동물식품, 하인즈냉동식품회사 등의 영업망도 하나로 통합, 하인즈영업회사를 새로 설립할 예정이다.

하인즈의 통합회사 설립에 대해 이 회사 행정담당이사 윌리엄 존슨 씨는 "우리 그룹의 기업통합은 전미 대륙에 걸쳐 있는 인력과 기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부분의 조합이 아닌 북미시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통합체로서 시장지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인즈사는 이날 또 통합회사가 들어설 피츠버그 인근에 비즈니스 대학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인즈사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추세를 연구해 하고 자원을 통합회사 내에서 적절히 배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인즈사의 통합회사설립 발표로 하인즈사 주식은 이날 뉴욕 증권시장에서 폭등세를 나타냈다.

미국 몬산토사, 환경친화 플라스틱 생산식물 개발
기존 플라스틱 비해 빠른 분해, 재사용 가능

미국의 유전공학자들이 굴지의 화학업체인 몬산토사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식물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과학 전문지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가 10월호에서 보도했다.

이로써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기존 플라스틱의 단점을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식물은 오이냉이와 유지 종자를 이용해 PHBV로 알려진 플라스틱을 생산하도록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조작해 개발된 것이다.

몬산토 측에 따르면 실험결과 이 식물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은 이 식물을 건조했을 때 나타나는 중량의 3%에 불과하지만 석유에서 추출한 기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분해가 빠르고 재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궁극적으로는 식물 한그루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사료는 물론 플라스틱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천연자원을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에 큰 관심을 갖고 박테리아를 이용해 PHBV를 생산하기도 했으나 생산 비용이 기존 플라스틱 생산비용보다 다섯 배나 비싼 탓에 실용화하지 못했다.

관련학계에서는 이 기술이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테이진(帝人)사 PEN수지 맥주용기 적용
칼스버그사 대상, 지난 8월부터

일본 테이진(帝人)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Polyethylene Naphthalat(PEN)수지가 세계적인 맥주 대기업 칼스버그사의 주력 맥주 제품 'Carlsberg', 'TUBORG' 380ml의 회수용 병용기로 지난 8월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은 칼스버그사의 본부가 있는 덴마크에서 발매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KK, 페플라스틱 고로원료화 사업 확대
업계 전체 30% 점유 예상

연간 약 4만톤의 산업폐기물계 플라스틱 고로원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NKK가 내



년 4월에는 동 10만톤 규모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2010년에는 30만톤 체제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철강연맹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절약 계획에서 연간 100만톤의 폐플라스틱 고로 원료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선행하고 있는 NKK가 업계 전체의 30%를 점하게 된다.

NKK는 염화비닐수지를 선별하고 산업폐기물계 폐플라스틱만을 고로 원료화하여 이것을 철광석의 환원제인 코크스의 일부대체재로 이용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이 전면 실시되게 되면 일반폐기물계 플라스틱의 리사이클이 커다란 과제가 되는데, NKK는 고로원료화가 이같은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염소가스가 고로가스 배관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일반계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비닐수지의 효율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NKK에서는 원심식 비중차 분리형의 플라스틱 분리시스템을 채용하여 염화비닐수지를 분리·제거하는 장치를 개발, 이것을 채용한 연간 3만톤 규모의 고로원료화 설비를 福山製鐵所 등 2개소에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폐플라스틱의 고로원료화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기초한 매트리어리사이클 기법으로써 인정되었으며 기존설비와 합쳐 연간 10만톤 규모가 된다.

NKK는 이와는 별도로 염화비닐수지로부터 염소가스를 분리하여 산소로써 회수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플라스틱의 고로원료화를 더욱 가속시켜 2010년에는 연간 30만톤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폴리켄, 최신 플랜트 건설 방침 2004년경 일본 최대급 규모로

일본의 三菱化學과 東燃化學의 공동출자회사로 일본 최대의 합성수지 메이커인 일본폴리켄이 2004년경 일본 최대급의 최신예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투자규모는 200억에서 300억엔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신설에 따라 기존공장은 산업활력 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을 겨냥하여 2003년까지 일부를 폐기한다.

화학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 정착에 따른 단계적인 관세인하로 세계적인 경쟁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잉감이 있는 기존설비를 폐기하고 코스트경쟁력을 갖춘 최신 설비로 전환하는 새로운 설비 투자 전략으로써 주목된다.

일본, 9월 에틸렌생산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일본의 통산성이 발표한 9월의 에틸렌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한 62만9천톤으로 두자리수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년동월 실적에 비하면 정기수리 실시 플랜트가 1개 플랜트 많은 3개 플랜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두자리수대의 증가율을 유지한 것은 수출 증가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K)